

# 성장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Correlation of Reading Quantities in Developmental Period and Reading Material Type

이 승 채 (Seung-Chae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성장시기별 독서량      |
| II. 관련문헌고찰      | 3. 시기별 독서량간의 상관관계 |
| III. 연구방법 및 제한점 | 4. 논의             |
| IV. 결과의 분석      | V. 결론 및 제언        |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릴 때부터 대학생시절까지 성장하면서 각 시기별로 읽는 도서의 양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각 자료별 상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한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등을 조사하고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로 특정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다. 2) 특정시기의 만화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다. 3) 특정 시기의 잡지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높다. 4) 중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

주제어: 독서량, 성장시기, 상관관계, 자료별 독서량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reading quantities in different developmental phases and various media(magazines, books, comic books). I surveyed reading quantities in developmental periods, by questionnaires. As a methodology of empirical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187 students at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tatistical techniques of a Pearson Correlation Test were employed according to my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as follows: 1) reading quantities of general book of specific period is correlated with general book reading quantities of specific period, 2) reading quantities of magazine of specific period is correlated with magazine reading quantities of other period 3) reading quantities of comic book of specific period is correlated with comic book reading quantities of other period 4) correlation among reading quantity of middle school period and high school period is high.

Key Words: Reading Quantity, Developmental Period, Correlation, Magazine, Comic Books, General Book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reate@chonbuk.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3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 I. 서론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독서의 내용과 양이 변화한다. 어렸을 때는 동화나 그림책을 많이 보는데 반하여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는 소설이나 철학서적을 많이 보게 된다. 취향에 따라서 단행본 외에 만화나 잡지류를 즐겨 보기도 한다. 그래서 독서지도 담당자들은 학생들의 현실에 맞추어 독서지도를 하기 위하여 독서지도 대상자가 어떤 종류의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있는지 독서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발표된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휴대전화 이용의 보편화,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매체환경 및 여가시간 변화는 책 읽는 시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나타났고, 독서시간은 주체적인 독서습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시켰다.<sup>1)</sup>

김강일 등은 책읽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sup>2)</sup> 많은 이들이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기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릴 때부터 대학생시절까지 성장하면서 각 시기별로 읽는 도서의 양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는지, 또한 각 자료별 상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일은 특정시기(예컨대 대학시절)에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대체로 어느 시기에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독서습관의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실제로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초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이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까? 더 나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은 해당시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일반도서, 만화나 잡지의 독서량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 독서실태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많이 행해졌지만 이런 연구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 II. 관련문헌고찰

우리나라에서 독서실태조사는 많이 행해진다. 오랫동안 한국출판연구소에서 국민독서실태조사를 해오고 있고, 정해성은 여성근로자들의 독서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한 바 있다.<sup>3)</sup> 김병주는 아동의

1)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press\\_view.jsp](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press_view.jsp)>  
[인용 2007. 5. 14].

2) 김강일, 김명옥, 평생성적 초등학교 4학년에 결정된다(서울: 예담출판사, 2004), p.83.

3) 정해성, "여성근로자들의 독서실태조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2집(1993), pp.73-84.

독서실태조사에 관하여 연구하였고<sup>4)</sup> 이만수는 D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실태를 조사하였다.<sup>5)</sup>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독서실태조사가 많이 행해지고 그 결과가 발표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밝힌 연구는 국내 DB는 물론이고 해외의 DB에 대한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 Ⅲ.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서베이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자료수집은 편의추출법 및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즉 전북대학교에서 다양한 학과 및 학년들이 수강하는 과목의 수강생 187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회수작업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 사이였고 통계처리는 전북대학교 응용통계연구소에 의뢰하였고 2007년 3월2일에서 3월 9일까지 실시하였다. SPSS12.0을 이용해 피어슨의 표본상관계수를 구하여 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설문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의 독서에 대한 응답자들의 기억이 요구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못할 경우에 데이터의 정교함이 다소라도 부족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은 특정 대학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의 일반적 경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점검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 Ⅳ. 결과의 분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은 대학강의에 참여한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참여한 강의교과목별 학생수는 '아동청소년정보' 74명(39.6%), '초급일본어' 36명(19.3%), '한국사의 이해' 42명(22.5%), '도서관정보자료이용법' 35명(18.7%)으로 구성되었다. 이 교과목들중 '아동청소년정보'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양과목이고 '아동청소년정보' 과목도 문헌정보학과 학생의 비중은 수강신청한 학생의 절반 이하여서 대부분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4) 김병주, "아동의 독서실태조사," 도서관학, 8집(1981), pp.157-182.

5) 이만수, "대학생의 독서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5권, 제1호(2004, 3), pp.155-18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2호)

함께 수강하는 과목들이었다. 성별은 남자 68명(36.4%), 여자 119명(63.6%)으로 여자 응답자가 많았으며, 학년별 학생들은 대학교 1학년 71명(38.0%), 3학년 57명(30.5%), 2학년과 4학년 각 36명(19.3%)과 23명(12.3%)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응답자는 19세와 20세가 각 55명(29.4%)과 40명(21.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유효 퍼센트(%)
교과목별	아동청소년정보	74	39.57
	초급일본어	36	19.25
	한국사의 이해	42	22.46
	도서관정보자료 이용법	35	18.72
성별	남자	68	36.36
	여자	119	63.64
학년	1학년	71	37.97
	2학년	36	19.25
	3학년	57	30.48
	4학년	23	12.30
연령	18세	5	2.67
	19세	55	29.41
	20세	40	21.39
	21세	26	13.90
	22세	10	5.35
	23세	13	6.95
	24세	21	11.23
	25세	8	4.28
	26세	4	2.14
	27세	4	2.14
	미기입	1	0.54
총 합		187	100.00

2. 성장시기별 독서량

가.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책 독서량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책 독서량에 대한 설문은 구체적으로 몇 권을 읽었다는 기억을 되살리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상대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응답하도록 요구하였다. 즉 거의 보지 않음, 적게 봄, 많이 봄, 대단히 많이 봄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는데 아동책을 많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43.9%(82명)로 가장 많았고, 적게 본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9.4%(55명), 대단히 많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0.9%(39명)이었다. 즉 응답자의 약 65% 가량이 자신이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책을 많이 보거나, 대단히 많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 초등학교 입학 전 독서량

구 분	빈 도	퍼센트
거의 보지 않음	11	5.9
적게 봄	55	29.4
많이 봄	82	43.9
대단히 많이 봄	39	20.9

나. 시기별 일반도서 독서량

〈표 3〉은 일반도서(교과서와 학습 참고서를 제외)의 학기당 독서 빈도를 시기별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 학기당 독서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1~9권을 읽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는 학기당 1~9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학기당 한 권의 독서도 하지 않았다고와 100권 이상을 읽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각 17.1%(32명)와 7.0%(13명)으로 가장 많아 극단적인 경향을 보였다. 김병주는 1981년도에 아동(초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실태 조사를 한 바 있다.<sup>6)</sup> 그 결과 초등학생들은 월 3권(한 학기에는 18권으로 판단됨)이하로 읽는 학생들의 비율이 48.4%에서 69.6% 사이로 밝혀졌고 중학생들은 73.8%(1학년)내지 78.6%(2학년)로 밝혀진 바 있다. 기준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과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시기별 일반도서 독서량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0권	32 (17.1)	21 (11.2)	14 ( 7.5)	8 ( 4.3)
1~9권	48 (25.7)	74 (39.6)	97 (51.9)	100 (53.5)
10~19권	33 (17.6)	39 (20.9)	26 (13.9)	36 (19.3)
20~29권	23 (12.3)	17 ( 9.1)	21 (11.2)	16 ( 8.6)
30~49권	16 ( 8.6)	14 ( 7.5)	10 ( 5.3)	14 ( 7.5)
50~99권	15 ( 8.0)	7 ( 3.7)	9 ( 4.8)	5 ( 2.7)
100권 이상	13 ( 7.0)	10 ( 5.3)	5 ( 2.7)	3 ( 1.6)
무응답	7 ( 3.7)	5 ( 2.7)	5 ( 2.7)	5 ( 2.7)

다. 시기별 만화책 독서량

〈표 4〉는 만화의 초/중/고/대학교 학기당 독서 빈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것이다. 한 학기에 만화를 한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재학시에는 50.3%가, 대학생 재학시에는 49.7%가 만화를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중등학교에

6) 김병주(198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8권(1981. 12), pp.157-158.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2호)

서는 34%대의 학생들이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화 독서량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재학시에는 절반이나 되다가 중·고등학교 재학 중 어느 정도 감소하고 대학교 재학시에 다시 절반 가까이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학기에 100권 이상의 만화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경우를 보면 초등학교 재학시에는 10.7%에 지나지 않지만 중·고등학교 재학시에는 13%대이고 대학생 재학시에는 5.3%로 감소하고 있어 대체로 어릴 때 적게 보고 중·고등학교 재학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보다가 대학생 재학시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시기별 만화책 독서량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0권	94 (50.3)	64 (34.2)	65 (34.8)	93 (49.7)
1~9권	17 ( 9.1)	14 ( 7.5)	26 (13.9)	22 (11.8)
10~19권	23 (12.3)	22 (11.8)	19 (10.2)	27 (14.4)
20~29권	13 ( 7.0)	18 ( 9.6)	11 ( 5.9)	10 ( 5.3)
30~49권	11 ( 5.9)	16 ( 8.6)	21 (11.2)	13 ( 7.0)
50~99권	4 ( 2.1)	22 (11.8)	15 ( 8.0)	7 ( 3.7)
100권 이상	20 (10.7)	26 (13.9)	25 (13.4)	10 ( 5.3)
무응답	5 ( 2.7)	5 ( 2.7)	5 ( 2.7)	5 ( 2.7)

라. 시기별 잡지책 독서량

〈표 5〉는 잡지의 시기별 독서 빈도를 제시한 것으로 모든 시기(초/중/고/대학생 시기)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 학기당 한 권도 잡지를 읽지 않았다고 응답할 만큼 잡지를 읽는 학생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잡지를 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잡지의 성격상 통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런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잡지를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초등학교 재학시 77.0%(144명), 중학교 재학시 63.6%(119명), 고등학교 재학시 52.4%(98명), 대학교 재학시가 50.3%(94명)으로 나이가 어린 시기일수록 잡지를 접한 경험이 적었다. 다음으로 1~9권을 읽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반대로 나이가 많을수록 많았다. 10권에서 19권까지 읽은 경우는 초등학교 재학시에 3.2%, 중학교 재학시 7.0%, 고등학교 재학시 6.4%, 대학교 재학시 5.3%로 나타났다. 그 이상의 독서횟수를 보인 경우는 극히 소수로 나타났다. 국민독서실태 조사결과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 국민들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독서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잡지 독서량〉은 성인이 일본의 1/4, 학생이 일본의 1/10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는데<sup>7)</sup> 본 조사에서도 역시 잡지책에 대한 독서빈도가

7) 문화관광부, 2007, 2006년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press\\_view.jsp](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news/press_view.jsp)〉에서 인용함.

일반도서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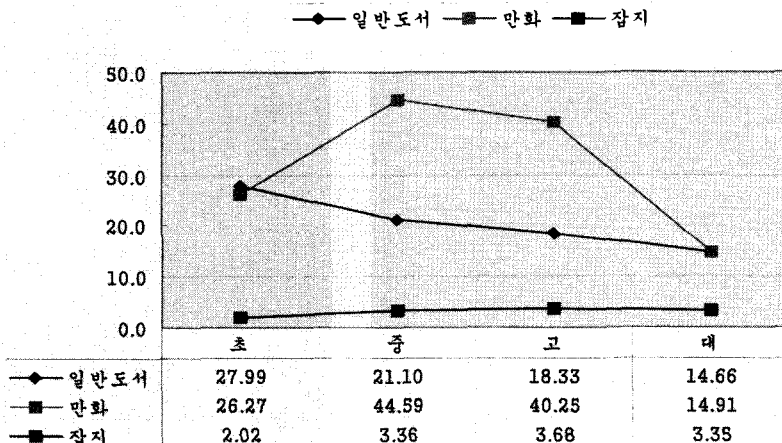
〈표 5〉 시기별 잡지책 독서 빈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0권	144 (77.0)	119 (63.6)	98 (52.4)	94 (50.3)
1~9권	27 (14.4)	44 (23.5)	65 (34.8)	71 (38.0)
10~19권	6 ( 3.2)	13 ( 7.0)	12 ( 6.4)	10 ( 5.3)
20~29권	1 ( 0.5)	2 ( 1.1)	2 ( 1.1)	2 ( 1.1)
30~49권	3 ( 1.6)	0 ( 0.0)	2 ( 1.1)	2 ( 1.1)
50~99권	0 ( 0.0)	2 ( 1.1)	1 ( 0.5)	3 ( 1.6)
100권 이상	1 ( 0.5)	2 ( 1.1)	2 ( 1.1)	0 ( 0.0)
무응답	5 ( 2.7)	5 ( 2.7)	5 ( 2.7)	5 ( 2.7)

마. 시기별 독서량 비교

다음 〈그림 1〉은 일반도서, 만화, 잡지의 학기당 평균독서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일반도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갈수록 독서량이 감소하였고, 만화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독서량을 보였다. 또 잡지는 전반적으로 시기별 독서량의 변화가 적게 나타났다.



〈그림 1〉 자료별 평균독서 횟수

### 3. 시기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 가. 대학교 재학시 독서량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과 대학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대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책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6〉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독서량과 대학 재학시 도서(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상관계수는 유의하다고 분석된 경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직선의 관계(일차방정식의 기울기)에 가까운지 판별해주는 것이다. 직선의 관계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비례(양수일 경우) 혹은 반비례(음수일 경우)의 관계에 가깝다는 것이다. 즉 유의성이 있을 때(p-value가 0.05이하) 상관계수가 1에 근접하면 비례함에 근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1에 그 값이 근접하면 두 변수 간에 반비례 관계에 근접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을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 독서량과 대학교 도서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자료의 종류에 무관하게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책의 독서량이 대학교에서 읽는 일반도서, 만화, 잡지 등의 독서량에 영향력이 없고 무관함을 보여준다.

〈표 6〉 초등학교 입학 전과 대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도서(대)	만화(대)	잡지(대)
초등학교입학전 아동책독서량		0.03	-0.04	-0.02
	p-value	0.65	0.62	0.80

##### (2) 초등학생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다음 〈표 7〉은 초등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과 대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일반도서가 대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와 잡지(유의수준 5%)에 상관관계가 있었고, 초등학교 만화가 대학교 만화(유의수준 1%)와 잡지(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초등학교 잡지가 대학교 잡지(유의수준 5%)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상관관계가 유의한 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해당 자료들은 초등학교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각 자료별 대학교 독서량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재학시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대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는 대단히 상관관계가 높고, 대학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대학 재학시 잡지 독서량과는 미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초등학교와 대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대학교		
		도서	만화	잡지
초등학교	도서	0.88	0.07	0.16
	p_value	0.00**	0.37	0.03*
	만화	0.04	0.31	0.31
	p_value	0.57	0.00**	0.00**
	잡지	0.08	0.03	0.17
	p_value	0.30	0.69	0.02*

(유의수준 \* : 0.05, \*\* : 0.01)

(3) 중학교 재학시 자료별 상관관계

〈표 8〉은 중학교 재학시의 독서량과 대학교 재학시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교 일반도서가 대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에, 중학교 만화가 대학교 만화(유의수준 1%)와 잡지(유의수준 5%)에, 중학교 잡지가 대학교의 잡지(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유의한 자료 간 상관계수가 모두 양수로 나타나 해당 자료들은 중학교 재학시의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대학교 독서량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재학시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대학 재학시 일반도서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대단히 높았으며(상관계수 0.83) 중학교 재학시의 만화 독서량은 대학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 어느 정도(상관계수 0.30) 상관관계가 있고 중학교 재학시의 잡지 독서량은 대학 재학시의 잡지 독서량과 약간(상관계수 0.27)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표 8〉 중학교와 대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대학교		
		도서	만화	잡지
중학교	도서	0.83	0.11	0.11
	p_value	0.00**	0.14	0.13
	만화	0.13	0.30	0.15
	p_value	0.07	0.00**	0.04*
	잡지	0.07	0.08	0.27
	p_value	0.33	0.26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4) 고등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표 9〉는 고등학교 재학시 독서량과 대학교 재학시 독서량 사이의 상관계수를 자료별로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고등학교 일반도서 독서량과 대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 독서량이, 중학교 만화 독서량과 대학교 만화(유의수준 1%) 및 잡지(유의수준 5%) 독서량이, 고등학교 잡지 독서

량이 대학교 잡지(유의수준 1%) 독서량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중학교 재학시 독서량과 대학교 재학시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와 유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일반도서와 대학교 일반도서 사이에 상관계수가 0.82로 가장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일반도서의 독서량이 많을수록 대학교 일반도서 독서량도 많아짐을 알 수 있고 고등학교 재학시 잡지 독서량이 대학 재학시 잡지 독서량과 상관계수가 0.50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고등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 대학 재학시 만화 독서량 간에 상관계수 0.39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고등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 대학 재학시 잡지 독서량 간에도 약한(상관계수 0.17)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표 9〉 고등학교와 대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대학교		
		도서	만화	잡지
고등학교	도서	0.82	0.04	0.08
	p_value	0.00**	0.56	0.31
	만화	0.05	0.39	0.17
	p_value	0.55	0.00**	0.02*
	잡지	0.07	0.14	0.50
	p_value	0.35	0.07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5) 대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표 10〉은 대학교 재학시에 읽은 각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로 상관관계를 분석해 제시한 것이다. 대학교 자료별 상관관계는 대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이 동 시기의 잡지 독서량과 1%수준에서 유의하였는데 상관계수는 0.15로 미약하게 나타났다. 일반도서 독서량과 만화의 독서량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도서와 잡지의 관계는 P값이 반올림하여 0.05이지만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 숫자가 존재하여 유의수준 0.05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와 잡지 사이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표 10〉 대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대학교	
		만화	잡지
대학교	도서	0.08	0.15
	p_value	0.29	0.05
	만화		0.24
	p_value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나. 고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고등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초등학생 이전 아동책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1>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독서량과 고등학생 재학시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과 고등학교 일반도서, 만화,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초등학교 입학 전 독서량이 고등학교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11> 초등학교 입학 전과 고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 기준	도서(고)	만화(고)	잡지(고)
초등학교 입학 전(p-value)	-0.01(0.85)	-0.01(0.89)	-0.05(0.52)

(2) 초등학생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2>는 초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과 고등학교의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일반도서가 고등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에, 초등학교 만화가 고등학교 만화(유의수준 1%)와 잡지(유의수준 1%)에, 초등학교 잡지가 고등학교 잡지(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자료 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가 모두 양수로 나타나 초등학교에서 자료의 독서량이 많아 질수록 고등학교 독서량도 많아짐을 의미했다. 즉 초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가 0.86으로 나타날 만큼 상관관계가 높았고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

<표 12>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 기준		고등학교		
		도서	만화	잡지
초등학교	도서	0.86	0.00	0.07
	p_value	0.00**	0.95	0.36
	만화	0.05	0.28	0.30
	p_value	0.50	0.00**	0.00**
	잡지	0.03	0.03	0.27
	p_value	0.65	0.69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교 잡지 독서량의 상관계수는 0.30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의 상관계수는 0.28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과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의 상관계수는 0.27로 나타났다.

(3) 중학생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3〉은 중학교에서 읽은 독서량과 고등학교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 일반도서가 고등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에, 중학교 만화가 고등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 만화(유의수준 1%), 잡지(유의수준 1%)에, 중학교 잡지가 고등학교 만화(유의수준 1%)와 잡지(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유의한 자료별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중학교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고등학교 독서량도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중학교 일반도서와 고등학교 일반도서의 상관계수는 0.9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 중학교 재학시 잡지 독서량은 고등학교 재학시 잡지 독서량과의 상관계수가 0.89로 나타나 역시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중학교 재학시의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의 상관계수가 0.61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학교 재학시의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 잡지 독서량도 0.38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표 13〉 중학교와 고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고등학교		
			도서	만화	잡지
중학교	도서		0.91	0.04	0.05
	p_value		0.00**	0.58	0.46
	만화		0.21	0.61	0.38
	p_value		0.00**	0.00**	0.00**
	잡지		0.01	0.22	0.89
	p_value		0.87	0.00**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4) 고등학생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표 14〉는 고등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과는 고등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이 동시기 잡지 독서량과 유의수준 1%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상관계수는 0.29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만화를 많이 읽을수록 잡지도 많이 읽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도서와 만화 및 잡지의 독서량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도서를 많이 읽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화와 잡지를 많이 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4〉 고등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비교		기준	고등학교	
			만화	잡지
고등학교	도서		0.10	0.01
	p_value		0.16	0.88
	만화			0.29
	p_value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다. 중학교 재학시의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 초등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과 중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중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초등학생 이전 아동책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5〉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독서량과 중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과 중학교 일반도서, 만화,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 독서량이 중학교 일반도서, 만화, 잡지 독서에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15〉 초 입학 전과 중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비교	기준	도서(중)	만화(중)	잡지(중)
초등학교 입학 전(p-value)		0.02(0.79)	0.01(0.85)	0.00(0.98)

(2) 초등학생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6〉은 초등학교에서 읽은 독서량과 중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과는 초등학교 일반도서가 중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1%)와 만화(유의수준 5%)에, 초등학교 만화가 중학교 일반도서(유의수준 5%), 만화(유의수준 1%), 잡지(유의수준 5%)에, 초등학교 잡지가 중학교 잡지(유의수준 1%)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유의성을 나타낸 자료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자료 간에는 자료별 초등학교 독서량이 많아질수록 중학교 독서량도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중 초등학교 일반도서와 중학교 일반도서에서 상관계수는 0.88(유의수준 1%)로 나타나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어서 초등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 중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도 상관계수가 0.60으로 나타날 만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초등학교 재학시 잡지 독서량과 중학교 재학시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도 0.33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재학시 만화 독서량과 중학교 재학시 일반도서 독서량은 상관계

〈표 16〉 초등학교와 중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중학교		
			도서	만화	잡지
초등학교	도서		0.88	0.18	0.10
	p_value		0.00**	0.01*	0.17
	만화		0.19	0.60	0.16
	p_value		0.01*	0.00**	0.03*
	잡지		0.04	0.11	0.33
	p_value		0.61	0.13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수가 0.19, 초등학교 재학시 일반도서 독서량과 중학교 만화 독서량의 상관계수는 0.18, 초등학교 만화와 중학교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는 0.16 등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3) 중학생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중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중학교 일반도서와 만화, 만화와 잡지가 유의수준 1%하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해당 자료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해당 도서가 많이 읽힐수록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된 도서도 많이 읽힐 수 있다.

〈표 17〉 중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기준	중학교	
			만화	잡지
중학교	도서		0.28	0.05
	p_value		0.00**	0.49
	만화			0.38
	p_value			0.00**

(유의수준 \* : 0.05, \*\* : 0.01)

라. 초등학교 재학시의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

응답자들의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료별 독서량과 초등학교 재학시의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 초등학생 이전 아동책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8〉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독서량과 초등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과 초등학교 일반도서, 만화,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는 5%에서 유의하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전 독서량이 초등학교 독서량에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하였다.

〈표 18〉 초 입학 전과 초등학교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 기준	기준	도서(초)	만화(초)	잡지(초)
초등학교 입학 전(p-value)		0.14(0.07)	0.10(0.20)	0.02(0.80)

(2) 초등학생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과의 상관관계

〈표 19〉는 초등학교 자료(일반도서, 만화, 잡지)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초등학교 일반도서와 만화 독서량, 만화와 잡지 독서량 간에는 유의수준 5%하에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해당 자료 간 상관계수는 모두 양수로 나타나 해당 도서가 많이 읽힐수록 상관관계가 있는 도서도 많이 읽힘을 의미하지만 상관관계는 아주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초등학교 재학시 자료별 독서량 간의 상관계수

비교 \ 기준	기준	초등학교	
		만화	잡지
초등학교	도서	0.18	0.08
	p_value	0.02*	0.30
	만화		0.16
	p_value		0.03*

(유의수준 \* : 0.05, \*\* : 0.01)

4. 논의

이제까지 분석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특정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일반도서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크고, 특정시기의 만화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크며, 특정 시기의 잡지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도서 독서량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시 등의 독서량 상호 간에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재학시에 일반도서를 많이 읽는 학생들이 대체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시에도 책을 많이 읽는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 대학교 재학시의 만화 독서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시의 만화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고 대학교 재학시의 잡지 독서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시의 잡지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중학교 재학시와 고등학교 재학시의 종류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시에 동일 자료의 독서량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중학교 재학시의 만화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의 일반도서 및 잡지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가 있고, 중학교 재학시의 잡지 독서량과 고등학교 재학시의 일반도서 및 만화 독서량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것은 학교 환경 및 연령의 유사함에서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요약하면 특정시기의 특정자료 독서량은 다른 시기의 동일자료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크며 중학교 재학시와 고등학교 재학시의 종류별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성장 시기별 자료별 독서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처리한 결과 밝혀진 중요한 사실(상관계수 0.20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재학시 등의 일반도서 독서량은 상호 간에 대단히 높은 상관관계(상관계수 0.80이상)가 있다.
2.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은 중학교 잡지(0.33), 고등학교 잡지(0.27)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3. 초등학교 만화 독서량은 중학교 만화 독서량과 높은 상관관계(0.60)가 있고 중학교 잡지 독서량(0.38), 대학교 만화 독서량(0.31), 대학교 잡지 독서량(0.31),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0.30),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0.28)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4. 중학교 만화 독서량은 고등학교의 만화(0.61), 잡지(0.38), 일반도서(0.21)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5. 중학교 잡지는 고등학교 잡지(0.89)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초등학교 잡지(0.33), 고등학교 만화(0.22)와도 상관관계가 있다.
6. 고등학교 재학시의 만화와 잡지 독서량은 서로 상관관계(0.29)가 있다.
7. 대학교 만화 독서량은 고등학교 만화 독서량(0.39), 중학교 만화 독서량(0.30), 대학교 잡지(0.24)와 상관관계가 있다.
8. 대학교 잡지 독서량은 고등학교 잡지 독서량(0.50), 초등학교 잡지 독서량(0.27), 중학교 잡지 독서량(0.27), 대학교 만화 독서량(0.24)과 상관관계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독서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청소년기의 독서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과 가정의 차원에서, 또한 각급 학교 차원에서 독서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된 내용 가운데는 초등학교 재학 이전 시기의 독서량과는 그 이후의 독서량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이 해당 시기의 전체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정확한 상관관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지, 또는 실제로 취학 이전의 독서량이 그 후의 독서량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인지, 혹은 연구설계 등의 문제 때문인지 후속의 연구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학 졸업 이후의 독서량과 그 이전의 독서량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전공 분야의 학생(예컨대 의대학생) 등의 반복독서에 관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부 록〉 설문지 내용

1. 이제까지 교과서나 학습참고서를 제외하고 시기별로 한 학기에 몇 권 가량의 책을 읽었습니까?

초등학교 재학시 일반도서( )권, 만화( )권, 잡지( )권

중학교 재학시 일반도서( )권, 만화( )권, 잡지( )권

고등학교 재학시 일반도서( )권, 만화( )권, 잡지( )권

대학교 재학시 일반도서( )권, 만화( )권, 잡지( )권

2.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아동책들을 볼 기회가 비교적 많았습니까?

- 1) 대단히 많았다.
- 2) 많이 본 편이다.
- 3) 적게 본 편이다.
- 4) 거의 보지 않았다.

※ 본인에 관하여 아래에 간단히 표시하십시오.

성별 남( ), 여( )

나이 만\_\_\_\_세, 대학\_\_\_\_학년